

국무총리 모두말씀

-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, 6.29(목) -

[1]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관련

- 내일(6.30),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총파업 집회가 시작이 됨
 - 오늘은 이 문제부터 논의하게 될 것임.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무려 6개월 동안 연인원 1700만 명이 촛불 집회를 계속했음.
 - 그러나 한 건의 폭력도 위법도 없이 세계인이 놀랄 만큼 평화로운 집회가 끝까지 이어졌음
 -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·민주의식을 유감없이 보여준 것임
- 내일부터 노동계의 총파업이 시작됨
 - 일부에서는 혼란이나 충돌을 우려하기도 함. 또 다른 사람들은 위법사태가 벌어져서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함
 - 그러나 저는 그런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함.
 -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기대가 큰 것처럼 노동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대 또한 큼
 -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 것처럼 노동계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높음. 이것을 정부와 노동계가 깊게 유념해 줬으면 함
- 정부는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, 노동계와 진정한 마음으로 대화할 것임.

- 노동계의 요구가 단번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,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씩 접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임
- 정부는 그러한 자세로 노동계를 대하고 노동계와 대화해 나갈 것 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 드림
- 이번 집회로 혹시 국민들의 피해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부처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, 집회를 하시는 노동계 인사들 또한 이 점에 배려가 있기를 바랍

[2]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 관련

- 오늘은 노동자 총파업과 함께 ‘소비자 친화적 리콜 제도 개선방안’에 관해서도 논의를 하게 됨
- 자동차나 가구 같은 국민의 사용이 많은 소비제품의 리콜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
 - 지난 10년 사이에 리콜 숫자가 10배 이상 늘었음. 이것은 소비자 들의 기대수준과 의식이 그만큼 향상되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생각함
-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이와 관련된 제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거나, 관련 절차가 불편해서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
 - 그래서 오늘은 소비자가 쉽고 신속하게 리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려고 함

- 저는 오늘 리콜제도 논의를 계기로 해서 소비자 정책의 방향도 ‘보호’(For the Consumer)에서 소비자를 정책의 주체로 ‘참여’(By the Consumer)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
- 아직은 정책이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아서 내놓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듬어 지는 대로 소비자 친화정부의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
- 관련 부처도 함께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
- 아무쪼록 오늘 논의가 소비자 정책을 개선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